
계엄을 미리 들었다는 김문수 후보, 사실 밝혀야

계엄에 대해서 미리 많이 들었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자 김문수 후보는 계엄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내란 친화적이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19일 속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계엄이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계엄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악이 옛날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극구 만류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내란 친화적입니다. 김 후보는 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이 계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장악하느냐는 현역군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만약 실현가능했다면 계엄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이런 후보가 내란 후보가 아니면 대체 누가 내란 후보라는 말입니까.

김 후보의 충격적 발언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와 계엄 이야기를 했는지 김 후보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특히 계엄의 계획서까지 있다는 장본인이 누구며, 왜 군과 하등 관계가 없는 당시 노동부 장관인 김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사실과 연루된 것이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등 윤석열 정권의 핵심각료들은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내란 동조세력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